

## 졸탁동시(啐啄同時)를 꿈꾸며—『여성문학연구』 53호 발간에 부쳐

페미니스트가 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를 사는 것 같다. 백인/남성/이성애/비장애중심주의적 관점으로는 아예 포착조차 되지 않는 난제들이 우리 주변에 즐비하다. 해결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우선 어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그것을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과정만이라도 제대로 밟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한 걸음 나아간 것이리라. 한국여성문학학회는 지금 여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질문을 매 국면마다 새롭고도 꾸준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제기하고 또 최선을 다해 그에 답해보려는 지적인 고락(苦樂)을 마다하지 않았다. 『여성문학연구』 53호도 이런 모색의 결과물이다.

『여성문학연구』 53호 기획란은 지난 6월 5일 전라남도 해남에서 열린 고정희 시인 50주기 기념 학술대회 <페미니즘 리부트 시대, 다시, 고정희>에서 발표된 글 중 일부로 구성됐다. 여성시사와 민중문학사, 여성해방운동사에서 고정희가 차지하는 위상은 시인의 사후 3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는 데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할 것이다. 페미니즘 ‘리부트’와 ‘백래시’가 같은 강도로 동시에 경험되고 있는 이 어지러운 시기에 고정희의 텍스트를 되새기며 그 유산을 되살리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역사성과 현재성을 띤다. 「고정희의 『밥과 자본주의』 연작시와 커먼즈 연구」에서 양경언은 어째서 고정희를 지금 이곳에서 다시 읽어야만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고정희의 연작시 『밥과 자본주의』는, 국가 주도의 개혁이나 개개인의 각자도생만으로는 타개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동’ ‘공유’ ‘돌봄’의 수행 역량이 중시되는 ‘커먼즈의 실천’을 문학적으로 요청한 선구적 텍스트라는 것이 위 논문의 요지이다. 무엇보다도 고정희의 시적 실천은, 시를 읽고 쓴다는 행위 자체가 ‘우리’를 확장시켜 공동체를 (재)구성하는 ‘커머닝(commoning)’의 일환임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또 한 편의 기획 논문은 고정희의 마당굿시를 고찰한 이은영의 글 「고정희 시에 나타난 불화의 정치성—마당굿시를 중심으로」이다. 마당굿시 창작을 통해 고정희가 지향하거나 성취했던 정치성의 양상과 수준을 랑시에르의 이론을 경유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해낸 논문이다. 필자 이은영

은, 여성·노동자·민중 등 우리 사회의 ‘뭉 없는 자’들이 권력과 불화하면서 자신들의 자리와 목소리를 정당하게 찾아나가는 과정을 가시화했다는 점에서 고정희의 마당굿시를 높이 평가한다.

특집란도 풍성하게 꾸러졌다. 『여성문학연구』 독자들로 하여금 동서와 고금을 오가며 ‘돌봄’에 대한 여성주의적 사유의 실험을 시도해볼 수 있게끔 하는 밑도 있는 논문들이 특집란을 채우고 있다. 지난 4월 24일 개최된 2021년 상반기 한국여성문학학회 학술대회 <왜 지금 아동인가—아동과 ‘돌봄’에 대한 여성주의적 사유>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논문들이어서 더욱 뜻깊다. 먼저 김정은의 「‘자연물이 된 아이’ 화소에 표상된 돌봄의 문제적 양상을 활용한 다문화 아동의 상호문화 주체성 모색—결혼이주민 구술설화 자료를 중심으로」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결혼 이주 여성들의 구술 설화를 분석하여, 돌봄에 내재된 통제 욕망과 훈육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부권적 폭력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하는 의미 있는 논문이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 향후 한국 사회에서 자존감 높은 상호문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필자의 전언이 갖는 울림은 상당히 강하다.

두 번째 특집 논문 「포스트휴먼 시대의 과학자-엄마 되기—SF 아동청소년문학에 나타난 모성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에서 김젼마는 SF 아동청소년문학이 포스트휴먼의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왜 기왕의 모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렴되고 말았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분석 대상이 되는 작품들에 등장하는 ‘여성 과학자’나 ‘포스트모던 엄마 기계’는 집안에서 실험실·연구실로 그 장소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념적 모성상과 돌봄의 가치 체계에 묶여 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SF문학의 미학적·정치적 가능성에 대한 여성주의적 논의가 한층 그 폭과 깊이를 더해가는 가운데, 아동청소년 SF문학에 나타난 이러한 모종의 보수적·퇴행적 움직임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김젼마의 논문은 더욱 시의성 있게 읽힌다.

민은경의 「정체성을 보존할 권리와 애도할 권리: 해외입양아동을 중심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읽기」는 한국 해외입양의 역사와 현주소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아동의 권리’에 대해 발본적 사유를 전개한 글이다. 1989년 제정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정독하면서 민은경은 해외로 입양된 한국 출신 아동들이 이름과

국적, 가족 관계를 꾸준히 박탈당함으로써 정체성 상실을 경험해 온 여러 사례를 제시하는데, 국가와 사회는 해외 입양 아동의 이러한 정체성 상실 경험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 애도할 권리를 아울러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애도할 권리’는 아동뿐 아니라 친모에게도 확장·적용되어야 하는 개념이며, 애도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국가와 사회가 그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 위 논문의 요지이다. 아동은 어떤 의미에서 권리의 주체일 수 있는지, 아동의 가장 근본적 권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아동의 권리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숙고하게 만드는 목직한 글이다.

특집 마지막 논문 「2000년대 한국시의 ‘여자-아이’들」에서 조연정은 ‘매 맞는 남성’과 ‘더 맞는 여성과 아동’이라는 선명한 이미지 제시를 바탕으로, 2000년대 비평 담론이 미래파 시들에 등장하는 ‘여자-아이’를 비가시화해온 맥락과 그 의미를 날카롭게 파헤친다. ‘여성’을 삭제하고 ‘아동’을 관념화하는 일련의 비평 담론이 문제적인 것은 그러한 담론화 과정에서 2000년대 시의 여성주의적 가능성이 탈각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조연정의 진단이다. 김민정, 이민하, 김행숙의 시를 여성주의적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재독해함으로써 2000년대에도 변함없이 이어져온 여성주의 시의 계보를 되살렸다는 것이 위 논문의 큰 미덕이다.

기획 및 특집 논문을 제외하고도 아홉 편이나 되는 일반 논문이 이번 호에 실리게 됐다. 정통 인쇄물부터 영화, SNS에 이르는 각종 매체 연구, 작가론, 작품론, 문화 연구 등이 총망라되어 있어, 지친 독자들의 지적·정서적 재충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김복순의 「『청맥』에 나타난 리저널리즘의 탈냉전지(知)와 트랜스내셔널/로컬의 젠더 2—문학비평을 중심으로」는 잡지 『청맥』을 비평사에 새롭게 자리매김하려는 필자의 연속된 연구 결과물로, 방대한 자료 검토에 기반을 둔 실증주의적 연구의 한 귀감이 된다. 「조선적 ‘에로’의 발명—1920~30년대 고백하는 섹슈얼리티와 성교육 프로젝트를 중심으로」에서 소영현이 시도한 작업 또한 유사한 맥락에서 범례로 삼을 만하다. 위 논문은 1920-30년대에 일어난 ‘젠더적 전환’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바탕으로 이 시기에 ‘음란한 것’이 (재)구성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한 식민지 조선 사회의 재편 양상을 설득력 있게 그려냈다. 유효만의 「한중 대중기억 속의 역사적 트라우마 서사 비교

연구—영화 「꽃잎」과 「슈슈」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인물에게 남긴 트라우마를 영화화한 「꽃잎」과, 문화대혁명의 비극을 다룬 「슈슈」를 비교·분석한 글이다. 5.18에 대한 공적 애도 작업을 바탕으로 한국 민중들은 죄의식을 지닌 윤리적 주체로 성장한 반면, 자유롭지 못한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오랜 기간 억압당한 중국 민중들은 제대로 된 역사적 성찰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중 비교연구의 가능성과 그 의의를 발견하게 해 주는 손색없는 논문이다.

현대 여성 작가론·작품론에 해당되는 글도 두 편 실렸다. 오정희 소설의 어머니상이 ‘여성 괴물’로 재현된다는 점을 포착해 그것이 갖는 포스트휴먼적 전망에 대해 논의한 이소연의 「어머니라는 ‘괴물’—오정희 소설에 재현된 모성성에 대한 해체적 접근」과, 정연희의 『불타는 신전』이 갖는 (여성)문학사적 의의를 밝힌 표유진의 논문 「여성수난서사의 전복: 사랑·전쟁·혁명의 다시 쓰기—정연희의 신문연재소설 『불타는 신전』을 중심으로」가 여기 해당된다. 고전문학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상사뱀 설화가 화자의 성별에 따라 변이되는 양상을 분석한 이지영의 「그 여자의 상사뱀, 그 남자의 상사뱀」과, 장편소설 『유씨삼대록』을 개과천선 서사에서 중요한 한 획을 그은 작품으로 고평한 한길연의 「개과한 여성의 독보적 인물로 거듭나기 과정의 서사화—『유씨삼대록』의 ‘장혜앵’을 중심으로」 등 두 편의 논문이 실렸다.

일반 논문 가운데에는 지금 이 시대와 호흡하는 두 편의 글이 특히 눈에 띈다. 김수아는 「‘이대남’과 반 페미니즘 담론—‘메갈 손가락 기호’ 논란을 중심으로」에서 페미니즘이 성 평등을 가로막는 부정의로 개념화되는 최근의 담론적 상황과 그 구조를 분석한다. 특히 실체조차 모호한 ‘이대남’과 ‘젠더 갈등’ 담론을 비판적으로 탈구축·재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김수아는 강조한다. 단지 표를 얻기 위해, 또는 오로지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 정치와 언론이 반 페미니즘 담론 형성에 가담하고 있는 오늘날 한국 현실을 예리하게 분석한 논문이다. 허윤의 「케이팝의 남성성과 트랜스내셔널리티의 불/가능성」은 케이팝 아이돌에서 힙합 아티스트로 변신한 박재범의 사례를 들어, 케이팝이 트랜스내셔널한 차원에서 상연하는 퀴어함은 무대 위에서만 허용될 뿐 실제로는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공모하거나 심지어 그것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을 선명하게 드러

냈다.

서평과 추천 석사 논문도 각각 한편씩 실렸다. 김초엽·김원영의 『사이보그가 되다』에 대한 이문우의 서평은 취약한 몸에 대한 두 저자의 경험과 사유가 ‘사이보그 되기’라는 SF적 상상력과 만날 때 빚어내는 화음을 페미니스트 시각으로 변주하고 있는 담백한 글이다. 오현지의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선희 소설 연구—여성 주체의 수행성을 중심으로」는 최근 들어 각광받다시피 하고 있는 작가 이선희를 대상으로 한 본격적 작품론이다. 새로 찾고, 다시 읽고, 달리 배치할 텍스트 자원을 많이 가졌다는 것이 페미니즘 연구자들의 특권이자 자랑이라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된다.

수행자들이 즐겨 쓰는 용어 중에 ‘줄탁동시(倅啄同時)’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달이 찬 알 속 병아리가 안에서 껍질을 쪼는 것이 ‘줄(倅)’이고, 어미 닭이 밖에서 마주 쪼아 그 껍질을 깨뜨려 주는 것을 ‘탁(啄)’이라고 한다. 깨달음의 길, 혹은 이상적 사제지간을 비유한다는데, 이즈음의 페미니즘 연구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다름 아닌 이 절묘한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안과 밖이 마주보고 쪼아야 하고, 심지어 그것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 내 안에서 솟아나는 에너지와 밖에서 다가오는 자극이 행복하게 만나는 순간을 상상해보며 발간사를 마친다.

2021년 8월 편집위원 손유경